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을 때리면 나도 맞게 되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 받는다.
남에게 성내면 나도 성냄 받는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3월 6일)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불자 건강지킴이’ 지역사찰이 나선다

조계종 도반HC, 기업들과 무료 검진 서비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을 찾는 불자와 관광객들이 병원이 아닌 사찰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축된다. 또한 검진 결과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 노년층 신도가 많은 불교계 복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와 IT기반 사회공헌 플랫폼 설계 전문기업 도둠코리아(대표 이상기), U헬스케어 구축기업 ㈜헬스맥스(대표 이상호)는 4월 2일 MOU를 통해 ‘U템플헬스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U템플헬스케어서비스는 도반HC와 각 분야 전문기업들이 함께 전개하는 ‘1사(社)1템플 힐링 건강체험 캠페인’이다. 도반HC는 조계사와 봉은사를 시작으로 3년간 종단 산하 주요사찰 200곳에 U헬스케어 시설을 설치, 스님과 신도를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찰을 찾는 대중은 심혈관 질환과 만성대사질환 등을 개인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 데이터의 누적관리와 추이 변동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사찰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자동심장충격기기도 배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U템플헬스케어 시스템인 ‘캐디(CADY)’는 ‘Care Diary’의 줄임말로 매일 건강 일기를 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캐디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 체성분계, 신장계, 자동심장충격기 등 IoT장비로 측장한 생체정보를 지정맥과 블루투스, 와이파이와 같은 다양한 통신방식을 통해 데이터로 축적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원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반HC 측은 “불자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자의 건강은 한국불교의 큰 관심사임에도 일상적인 관리가 미흡해 병이 생긴 뒤에야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실정”이라며 “U템플헬스케어는 일상적인 건강 체크와 더불어 지역 1차 의료기관과 연계,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즉 불교계가 지역 의료계와 함께 불자들의 주치의로 거듭난다는 게 사업 주체의 설명이다. U헬스케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불자는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며 운동효과를 얻고, 건강검진을 통해 지역 의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지역 1차 의료기관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상담하는 경우에도 의료보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계는 고령신도들의 건강정보를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어 각종 질환으로 인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U템플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지역사회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충당한다. 이로 인해 사찰과 불자는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홍보와 기부금영수 처리가 지원된다.

도둠코리아–㈜헬스맥스 연계
4월 2일 조계사부터 시범사업
3년간 200개 주요사찰 목표로
지역기업 사회공헌 유치 나서

혈압·스트레스·체성분 등 검진
스마트폰 앱으로 결과 확인도
고령신도 많은 불교 도움 전망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개시식에는 도반HC 회장 원행 스님과 대표이사 지현 스님,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스님 등이 참석해 U템플헬스케어 시스템 ‘캐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서 도반HC 회장 원행 스님은 “좋은 기기와 건강관리시스템을 출연해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 종교계 첫 사례이면서 불자들에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재가불자뿐만 아니라 스님, 사찰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어 혈압계와 스트레스 측정계 등을 이용하며, 검진결과를 직접 확인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반HC는 참여기업 공문을 접수해 대상사찰을 선정할 예정이다. (02)720-1576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불기 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새기는 봉축 표어를 ‘우리 모두 하나 되어’로 정했다. 표어는 나와 가족, 우리 사회 각계각층, 남과 북 등 세계는 모두 한 송이 꽃 ‘세계일화’라는 취지로, 우리 모두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염원을 담았다. 조계사는 4월 2일 표어로 도량등 장엄을 마치고 4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도량등 점등식을 개최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고려 전기 마애약사불 처음으로 발견

가야문화재硏, 거류산서 확인… 개인 블로그서 인지·추적

보고된 적 없는 마애불
특유 지역색 중요 가치

지금껏 확인된 적 없는 마애불이 경남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박종익)는 “학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마애약사불좌상을 경남 고성 거류산서 발견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거류산에서 직접 조사·발견한 마애약사불좌상은 크기 약 5m의 큰 바위 서쪽 평평한 면에 높이 2.54m 크기로 새겨져 있으며, 얇은 선으로 새긴 신체 위에는 가사가 이중착의(二重着衣)로 걸쳐진 형식이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올린 시무외인을 취하고 있으며, 왼손에 보주를 들어 약사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큰 연꽃을 엎어놓은 모양의 무늬가 새겨진 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좌선한 형태를 지닌다.

마애약사불좌상은 둥글넓적한 얼굴에 과장된 이목구비, 짧고 선명한 목에 세 개의 줄(삼도, 三道), 부조로 새긴 머리와 얇은 선으로 표현한 몸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통해 마애약사불의 존재를 인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상의 위치를 추적했다. 결국 거류산 일대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끝에 지난 3월 22일 불상을 발견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경남 고성 거류산에서 발견한 고려 전기 추정 마애약사불좌상.

연구소 측은 “경남 고성은 현재 불교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곳으로, ‘사례가 많지 않은 마애약사불’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마애불은 고려 전기의 작품인 제천 월악산 덕주사 마애불(보물 제406호)과 같은 양식을 보인다”면서 “이는 고려 전기 수도인 개성에서 보였던 양식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것으로 지역 특색을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미래, 교육불사에 달렸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교육불사 후원법회 유시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불사에 달려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오는 4월 10일 봉행되는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앞두고 유시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공개된 유시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불사에 달렸음을 전제하며 “불교가 시대의 등불이 되고, 고통받는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기 위해서는 깊은 신심과 대비 원력으로 애민중생하고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는 바른 수행자를 양성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불사가 더욱 흥왕해 종단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동량지재(棟梁之材)가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교육불사 후원법회’는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원행)의 주최로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봉행한다.

지난 10년간의 승가교육 개혁불사 과정과 성과를 종단 안팎에 알리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후원법회는 승가교육 개혁불사 현황 보고·각계 축하 메시지·후원기금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宗正猊下 諭示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불사(敎育佛事)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불사(敎育佛事)가 더욱 흥왕(興旺)하여 종단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동량지재(棟梁之材)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출현하기를 기대하며 격려합니다.

一把柳條收不得(일파유조수부득)하여 — 한 주먹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해서
和風搭在玉欄干(화풍탑재옥난간)이로다. — 봄바람에 옥난간 벽에다 걸어 둠이로다.

불기2563(2019)년 4월 10일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

교육불사 후원법회

일 시 불기2563(2019)년 4월 10일(수) 오후 2시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지하 2층)
후 원 국민은행 023501-04-213385 / 재)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문 의 02-2011-180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원행 합장